

전북명예도민증 외국인에 '첫 수여'

일본 이시카와현 이나무라 타케오 의원, 2001년부터 문화·청소년·의회 등 교류 지원 공로 인정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양 지방정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류 이어가는데 힘을 모으자"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 외국인에게 처음 수여됐다. 전북자치도는 공공외교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가 이나무라 타케오 의원에 명예도민증을 지난 22일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북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나무라 타케오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전북과 이시카와현이 문화, 청소년, 의회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 기반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직접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며 "앞으로도 양 지역간 교류가 한일 양국 관계를 이끄는 풀뿌리 교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며, "양 지방정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나무라 타케오 의원은 "한일 및



공공외교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일본 이시카와현 이나무라 타케오 의원에 명예도민증을 지난 22일 수여했다.

전북과 이시카와현의 관계를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 40년이 넘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게

돼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전북과의 교류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공공외교활동에는 하세 히로시

이시카와현지사, 이시카와현의회 한일 우호추진연맹, 이시카와현 한일친선협회가 참석했다.

하세 히로시 현 지사는 "올해 1월에 발생하였던 지진피해에 의연금을 비롯해 전북에서 많은 마음을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북대표단을 꾸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전북자치도는 기간 동안 주일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문화카라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외국인 명예도민증 수여, 그리고 전북도 관광객 유치에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일정을 추진했다.

또한 오는 2025년 오사카엑스포에 전북과 이시카와현이 공동으로 참가해 공연을 진행하고 음식을 소개하는 등 양 지역의 매력을 함께 알리는 준비를 펼쳐가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수해입은 소상공인에 53억 지원

군산·익산·완주 특별재난지역, 피해 상가 당 2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가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원씩 총 53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접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9월 말 종료됐으며, 군산 1,515곳, 익산 1,032곳, 완주 96곳 등 총 2,643곳의 소상공인 상가가 지원대상에 확정됐다. /이만호 기자

도, 국제교류자문관 초청행사 개최

17개국 10명 국제교류자문관 초청... 국제교류 협력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국제교류자문관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의 출범을 기념하며, 변화된 도정 방향과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17개국을 대표하는 국제교류자문관 10명이 초청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초청된 자문관들은 전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들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도정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은 전북의 산업, 문화,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도정과 지역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전주와 김제의 주요 산업기관을 방문하고, 스마트팜을 둘러보며 전북의 혁신적 경제 동력을 확인한다. 둘째 날에는 전북도청에서 자문관 간담회를 통해 중장기 국제교류 방향과 새민군 현안을 논의하며, 자문관들의 건의 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산불 재난 최소화'의 모범... 전북의 차별화된 산림관리 '성과'

전북자치도, '2024년 산불예방·대응 평가' 서 전국 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4년 산불예방·대응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장려)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방화 홍보 △대비 △대응 △협력도 등 7개 주요 지표를 정량 및 정성으로 분석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조한 봄철 대형

산불 발생 위험 증가와 등산객 및 여가 인구의 증가로 어려움 속에서도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봄 전국에서 212건의 산불로 92.66ha의 산림이 소실됐으나, 전북은 13건의 산불 발생과 4.73ha의 피해(건당 피해면적 0.36ha)로 산불재난 최소화에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조기 설치(1월 26일)와 더불어 연휴

및 주요 기념일 특별 비상근무 운영, 도·시군 단속반의 기동단속 강화와 계도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시장·군수의 직접 지휘와 산불 진압 지휘차량 출동 체계를 통해 초기대응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북자치도는 산불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했다. △주말 기동 단속과 집중 계도 활동으로 불법 소각 행위 14건 적발과 20건

의 과태료 부과 △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국민의 경각심 고취 △가해자 검거율 46.1% 달성으로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전북은 산불 진화 유공으로 2명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서 35개 우수마을이 선정되어 현판을 수여받았다. 이 중 우수마을 이장 6명은 산림청장 표창과 상금(각 30만 원)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만호 기자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방사업 모델 제시

도 산림환경연구원,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공모서 '우수상'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제7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방사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한 공모로, 산림환경연구원이 직접 시공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평가, 인터넷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 노력과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지는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지역으로, 이곳은 자연휴양림 인근의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전북 산림환경연구원은 주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석을 활용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 생태계와 조화로운 공법을 설계에 반영했다. 특히 주변 산림과 자연스럽게 어

우러지는 사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생태계 보존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친환경적 접근은 지역 사회와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사방사업에서 계획 대비 112%를 초과 달성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사방댐 122개소를 완공했으며, 내년에는 국비 235억 원과 지방비 101억 원을 포함한 총 3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90개소, 계류보전 34km, 산지사방 13ha, 산림유역관리 2개소를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이번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친환경 사방공법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서울디지털재단, 새만금 지능형 도시 건설 위해 '맞손'

디지털 전환·혁신기술 도입 통한 상호협력 다짐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25일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하 재단)과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새만금 지능형 도시 건설과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공사 나경균 사장과 재단 강요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약의 중요성

과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새만금 사업 및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능형 도시 건설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과제 협력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운영 시스템 적용 과제 협력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 과제 활용 협력 △디지털 경영 전환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새만금과 서울시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DX) 시대를 선도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동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새만금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와 새만금이 함께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로 성장하는 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경균 사장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기술의 적용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